

웹 2.0 시대의 프라이버시

청년 UCC 이용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동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표방한 소위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호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는 UCC(User Created Contents) 활용을 통한 자기 노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웹 2.0 시대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적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UCC를 활용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용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UCC를 통한 이들의 사회적 소통 방식과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의 자신 노출 및 공사 구분의 방식,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프라이버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콘텐츠를 선택하고 그 접근과 공유의 범위를 설정할 때 공사의 구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UCC를 통해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노출되고 감시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지만, 악의적인 반응을 얻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와 연계시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웹 2.0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UCC, 프라이버시, 공사의 구분, 심층 인터뷰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서로 연결시

* 이 논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원한 「UC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donghoo@incheon.ac.kr

키는 월드 와이드 웹(이하 웹)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웹을 통해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리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2000년 대로 넘어오면서 웹을 통해 각종 콘텐츠의 상호연결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 제작에 참여하는 웹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소위 웹 2.0의 시대를 맞게 된다. 블로그, 각종 웹기반 공동체, 사이월드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 비디오 공유 사이트, 위키 백과와 같은 집단적 정보 제작 사이트 등이 활성화되고, 일반 이용자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생산 및 공유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표방한 소위 웹 2.0 시대가 도래 하면서, 보안, 저작권, 프라이버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호가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2005년 애완건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네티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20대 여성의 ‘개똥녀’ 동영상 사건에서부터 2008년에 5월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김밥 할머니 폭행 동영상’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이들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처음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전파되며 폭발적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규범에 비춰 논란의 여지가 있던 동영상 주인공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았고 이들에 대한 가혹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반 이용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 새로운 언론 기능에 동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동안 각종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 및 정부 사이트에 축적된 개인 정보의 유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개인정보의 오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이용자가 만든 UCC(User Created Contents) 혹은 UGC(User Generated Content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는 웹 2.0 시대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과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적 조사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전제하며 법적·규범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가 갖는 당위적 가치가 침해받았을 때의 사회적 문제

를 논의해나가기에 앞서, 우선 개인들의 UCC 활용에 있어 사적 영역이 어떻게 경험되고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UCC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10대, 20대 이용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UCC를 통한 이들의 사회적 소통 방식과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의 자신 노출 및 공사 구분의 방식,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프라이버시 인식 등을 미시적으로 관찰해보았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UCC 경험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현 시대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규범론적인 차원이 아닌 경험적인 차원에서 고찰해보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의 틀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1)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경험과 인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발달이 공적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동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웹 2.0시대의 새롭게 부상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s라는 정치와 정치적 활동의 공적 영역과 가족의 가정 영역 혹은 사적 영역을 지칭하는 oikos의 구분에서부터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¹⁾ 사적인 것의 의미는 공적인 것과 짝을 이뤄 대비되는 것으로서, “개방되거나 노출 혹은 접근가능 것에 대비되는 감춰지고 물러난 것” 혹은 “집단적인 것이나 집단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비되는 개인적인 것 혹은 개인에게만 속한 것”으로 이해해볼

1)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기 위해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나온 프라이버시 부분 (<http://www.science.uva.nl/~seop/entries/privacy/>)을 참조.

수 있다(Weintraub, 1997). 하지만 와인트럽(Weintraub)에 따르면, 공사의 구분이 정치적 가정보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경제학적 모델에 따르면 국가 행정과 관련된 것은 공적이고 시장 경제와 관련된 것은 사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반면, 공화주의 덕목을 강조하는 고전적 모델에서의 공적 영역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공동체의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사나 인류학에서는 공적 영역을 유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sociability)의 장으로 보기도 하고, 페미니즘에서는 시장 경제로부터 가정을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사 구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막스(Marx, 2001)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행위의 객관적 내용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는 단일한 차원의 개념, 엄격한 이분법이나 절대적인 개념, 그리고 고정된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석의 방식이나 프레임에 의존하는 다차원적이고,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상황적이거나 맥락적인 개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차원성이나 상황성은 때에 따라선 서로 겹쳐지거나 경계가 모호하고, 때에 따라선 확실하게 구분되고 대립될 수 있다. 갤(Gal, 2002)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시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가 상대적이고 상황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이러한 경계가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에 구현되는 과정이나 맥락에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환경적 조건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옹(Ong, 1982)은 인쇄술이 “필사 문화의 일반 책보다 더 작고, 더 휴대하기 편한 책을 생산함으로써, 조용한 구석에 혼자 책을 읽거나 마침내 전혀 소리 내지 않고 읽는 심리적 조건을 마련”했고, “소리의 세계에서 말을 떼어내어 시각적 표면에 한정시켜 통제하고 지식의 관리를 위해 시각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내부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자원을 좀 더 비인격적인 사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자해독력의 보편화는 사생활이나 개인의 권리 개념이 배태되는 문화적 배경 중 하나로 이야기된다(애쉬 크로프트, 2008, 584~588쪽). 또한 사피로(Shapiro, 1998)는 커뮤니케이션 테

크놀로지가 17~18세기에 등장한 가정의 경계(boundary) 및 프라이버시 개념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전화는 가정의 사적 영역에 침투가 가능할 수 있도록(permeable)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경계를 오히려 공고히 하며 가정 내의 프라이버시를 강화시켰다고 한다. 그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발달이 집에서 프라이버시를 즐기며 다양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상호작용을 갖춘 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같은 경우는 “가정이 구성하는 경계의 역사적 개념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바깥 세계를 가정으로 가져오지만, 동시에 가정 세계를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집이 갖는 장소감 혹은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윌리엄스(Williams, 1974)는 ‘이동성을 가진 사사회(mobile privatization)’라는 용어를 통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노동 혹은 공적 세계에서 분리된 가정에 외부 세계를 어떻게 매개했는지를 설명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거나 모호하게 만드는데 일조해왔다. 열린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을 더 이상 쉽게 나눌 수 없다. 개인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탈영토화시키고 자신의 사적인 표현들을 전시하며 저자로서의 즐거움을 맛보거나 관계의 망을 형성해간다. 개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며 좀 더 통제된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고 자신이 사적인 일이나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매일 매일 전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표현은 자신의 블로그를 떠나 쉽게 옮겨 다닐 수 있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타인과 만나기도 한다. 가장 개인적인 행위도 개방의 기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자기 노출’이나 ‘전시주의’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접속한 누구나에게 타인과 연결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적이 데이터의 형태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폰, 웹캠 등 개인용 영상 미디어 이용 증가나 공적 장소의 감시 카메라 설치의 증가를 인해, 공적 도시

공간에서부터 개인의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혹은 산업 현장에서의 공정 과정에서부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코스켈라(Koskela, 2003)는 이러한 재현의 시대를 ‘캠 시대(the cam era)’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재현들은 사회적 질서 유지나 통제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하고(Curry, 1997; Graham, 1998; Whitaker, 1999), 개인의 디지털 주체성을 형성하는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는 영상 기술의 발달은 ‘파놉티콘’이란 은유로 대표되는 현대적 감시 체제의 강화에 일조한다는 우려를 낳으며,²⁾ 근대적 프라이버시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달은 개인의 이미지 생산과 유포를 수월하게 하면서 개인의 자기 전시 욕구에 부응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일상을 담아낸 소위 ‘홈 웹캠’의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사회 표면적으로 비가시적이었던 섹슈얼리티나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하고(Cheddie, 1999), 개인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Lyon, 1998). 한편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가 사용자의 위치 파악에 사용될 수 있어 자기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Lyon, 2001), 오히려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감시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Koskela, 2004).

개인의 감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쾌함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상 기술을 이용해 자기의 가시성을 높이려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Groombridge, 2002). 카메라가 감시가 아닌 즐거움의 원칙에 충실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Weibel, 2002). 예를 들어, 제니캠(JenniCAM)을 연구한 짐로그루는 웹캠이 “시각, 젠더, 정체성의 인식론적 개념을 둘러싼 문화적 긴장을 드러내며 젠더화된 주체의 재현과 구성에 갖는 기술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Jimroglou, 2001, p. 291). 이러한 웹캠의 전시주의는 자기의 친밀한

2) 예를 들어, 이러한 우려는 Poster의 “superpanopticon”(1995), Mathiesen의 “synopticon”(1997), Groombridge의 “omnicon”(2002), Mann과 그의 동료들의 “neo-panopticon”(2003)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적 삶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을 얻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사적인 것의 개념에 녹아들어 있는 수치와 정숙함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UCC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콘텐츠 제작자 혹은 게시자들은 개인의 정보, 내용의 적절성, 기술적 접근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친한 사람들과만 공유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정보를 드러낸 채,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적으로 사적인(publicly private)’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정보를 상대적으로 감출 수 있는 ‘사적으로 공적인(privately public)’ 활동도 할 수 있다(Lange, 2008). 개인이 콘텐츠의 제작 및 가공 그리고 유통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를 통해 노출된 개인의 정보량,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정보 제공자와 수용집단이 갖는 다양한 관심사와 관계 맺기 방식 등에 따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선이 보다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다.

2) 웹 2.0 시대의 프라이버시 쟁점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법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새뮤얼 워렌(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이다(Warren & Brandeis, 1890). 이들은 개인이 국가나 대중 언론으로부터 감시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였다.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사생활 보호, 정보자기결정권,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최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행정적·상업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와 통신 프라이버시 권리개념

이 등장한다(성선제, 2004). 국가 및 대중 언론의 감시 및 통제에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라는 근대적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이 정보에 대한 통제권 개념으로 변화했고, 더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잠재적 감시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식별되지 않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제시되고 있다(우지숙, 2005).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혹은 보다 큰 권력기관의 감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감시로부터의 자유, 개인주의, 인간의 존엄성, 정체성, 익명성, 비밀 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권리 및 가치와 연관된다(Flaherty, 1999; Lyon 2001; Solove, 2002).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치, 이해관계,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개념 자체가 다른 주요 관심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불필요하는 학자도 있다(Solove, 2002).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가치로서 침해될 때만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적이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위 웹 2.0의 시대에서는 개방(being open), 피어링(peering), 공유(sharing), 전지구적 활동(acting globally)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공유 사회의 원칙에 따라(Tapscott, 2006), 지식은 유동적인 아이디어의 집합체로 변환되며 수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기회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조화되었다. 또한 대중은 일종의 광범위한 공동체를 이루며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통합적인 지식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특정한 소수의 메시지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식 생산의 위계질서나 통제구조에서 벗어나 무질서(anarchy)와 끝없는 참여 과정으로 통해 지식이 생산될 수 있지만, 이러한 탈중심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수집·전시·저장·처리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개인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정체성 도용에서 물리적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혹은 뜻하지

않은 인식 공격에서부터 음해성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보호와 가장’ 양식 형태의 사용자 익명성, 비연결성, 비관찰성, 가명사용 등이 건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개인이 자신의 개인 프로파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전시하고자 할 때 생기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Weiss, 2007). 개인 정보를 감추고 가장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갖는 목적이나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혜택과 모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의 노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정보 노출을 감수하거나 ‘프라이버시 제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가스의 연구는 “블로거들이 블로그의 프라이버시 셋팅에 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경험했을 때에 반응하는 방식이 서로 분리되어있다”고 보고한다(Viégas, 2005).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조심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Lenhart, 2005).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8)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s, 이하 SNS)를 통해 개인의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연결 목록’을 옮겨다니는 방식이 공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며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통해 개인은 검색, 선택, 수용, 제작, 유통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관한 개인의 결정력이나 제어력은 느슨하다는 것이다. 리빙스톤(Livingstone, 2008)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친구들과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친밀감의 공간을 창조하며 자아실현을 해나가지만, 한편으로 자기 노출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또래 그룹에

3) 이들은 SNS를 개인이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공적 혹은 준-공적 프로필(profile)을 만들 수” 있고, “연결(connection)을 공유하는 다른 이용자의 목록을 보여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연결 목록에 따라 보거나 옮겨 다닐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로 정의한다.

왕따되고 싶지 않아서, 혹은 SNS의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이 청소년들의 미묘한 ‘친구’ 분류 방식에 걸맞지 않아서,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SNS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자기 정보의 노출 정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자기 노출의 목적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전시가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가운데, 네트워크에 유포되는 자기 정보에 대해 개인이 어느 정도 결정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기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욕구만큼이나,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이 확대되면서 ‘선출판 후여과’ 방식의 콘텐츠 유통이 이루어지고 소그룹의 커뮤니케이션과 대형 방송 창구 모두가 상호연결된 단일 환경 안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표현물에 대한 독자의 규모를 늘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된다(Shirky, 2008). 따라서 개인 혹은 참여 집단의 표현물의 자유로운 유통은 특정 개인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주홍 글씨”를 새길 수 있게 된다(Solove, 2007).

흥미로운 사실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Solove, 2001). 일련의 학자들은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갭을 이해하기 위해 프라이버시가 인식되고 있는 맥락에 보다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상황적 역동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Hine & Eve, 1998; Sheehan, 2002; Viseu, Clement & Aspinall, 2004). 요컨대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실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에는 갭이 존재하고 프라이버시의 인식과 실천은 소통의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상에 인식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은 다양한 차원을 가질 수 있다. 카리다와 코클라키스(Karyda & Koklakis, 2008)는 온라인 공동체 회원들의 인식하는 프라이버시 유형이 감시로부터의 프라이버시(원하지 않는 침입이나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심리적 프라이버시(개인의 감정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상호작용의 프라이버시(개인에게 의미 있는 친밀성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으로 다양하다고 논의한다.

근대 사회에서 국가와 대중 언론과 같은 큰 권력 기관이나 타인의 감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프라이버시 개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보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관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프라이버시, 개인의 감성과 친밀성이 유지되는 영역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관계에서 개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프라이버시를 하나로 정의될 수 없으며, 특히 UCC 이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경험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넷의 네트워킹이 사적인 것의 공개 및 비공개, 혹은 공적인 소통 및 전시의 메커니즘의 새로운 조건이 되면서, 개인이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프라이버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근대적 프라이버시 개념이 도전받고 있다. 웹 2.0 시대에는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어떻게 일반화하고 그 당위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 과연 사적인 것에 대한 일상적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UCC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개념을 프라이버시 침해의 극단적인 사례로 이해하기보다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UCC를 통해 공적 혹은 준-공적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면서 공사의 구분이 어떻게 정의되고 프라이버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때 인식된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보다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관찰의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시 말해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론

본 연구는 UCC의 제작, 유통,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노출에 있어 사적 영역 혹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용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 UC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둘째, 이러한 UCC 활용에 따른 자기 노출에 있어 공과 사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셋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가져보았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UCC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UCC의 일상적 활용 과정에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공과 사의 구분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프라이버시 개념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자신들의 초중고교 시절을 보내며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로 의식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라왔고, 자기표현이나 사회적 소통을 위해 인터넷 공간을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들의 UCC 활용 경험, 특히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경험 속에 공사의 구분이나 프라이버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는 수도권에 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33여 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08년 9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인터뷰 참여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며 인터뷰 참여자 간의 유대 정도에 따라 1인, 2인, 3인 혹은 4인 규모의 모임으로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초기 섭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일반 UCC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이 소개해준 제2의 인터뷰 참여자 그리고 제2의 인터뷰 참여자가 소개해준 제3의 인터뷰 참여자 등 일종의 릴레이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일으켰던 특별한 사례나 적극적인 UCC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일반 UCC 이용자, 특히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젊은 UCC 이용자의 경험 속에 공사 구분과 프라이버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시적으로 관찰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자를 인터넷 이용량이나 UCC 활용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섭외하기보다는 연령이외에 특별한 기준 없이 초기 접촉자를 선정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스노우볼링 방식을 통한 인터뷰 참여자를 확대해갔다.

연구자는 조사에 앞서 인터넷의 활용 방식을 알아보고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 오용에 관한 불안감 정도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해보는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정량분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적인 미디어 활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인터뷰 진행을 위한 첫 질문을 던지기 위해 활용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지만 최소한 개입하는 반구조화된 질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그동안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해왔고 UCC 제작이나 수용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UCC 활동에 있어 자신의 표현물을 공개 하거나 공유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개와 공유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이들이 말한 경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UCC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인식과 실천의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해내기보다는, UCC 활용과 프라이버시 인식 간의 관계에 개별 사례와 이러한 경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세밀하게 관찰해보고자 했다. 인터뷰 참여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

구분	나이 (학년)	성별	인터넷 이용 시작 연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	주요 이용 장소	본인 제작 UCC			타인의 UCC 수용	
						주요 UCC 유형	유통 사이트	제작 횟수	평균 수용시간	주요 수용 사이트
S1	18(고2)	여	1999	3-4 시간	집	사진	미니홈피	주3회	하루50분	싸이월드, 다음, 판도라 TV
S2	18(고2)	여	1998	2-3시간	집	사진	미니홈피	-	하루2-3 시간	다음텔존, 다음카페
S3	18(고2)	여	1999	2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하루1회	하루60분	싸이월드
S4	17(고1)	여	1999	3시간	집	글	미니홈피	하루1회	하루60분	다음카페
S5	17(고2)	남	1997	30분	집	글, 사진 동영상	동아리 카페	-	주 20-30분	여러 블로그
S6	18(고2)	남	2003	1시간	집	-	-	-	주10분	인터넷뉴스
S7	18(고2)	남	2003	2시간 30분	집	-	-	-	주60분	영상제작 및 개그 사이트
S8	18(고2)	남	2003	30분	집	-	-	-	주15분	엠엔 캐스트
S9	20(대1)	여	2000	2-3시간	집	-	-	-	주 3시간	네이버, 싸이월드
S10	20(대1)	여	1997	4시간	집	글, 사진, 동영상	미니홈피	하루1회	하루30분	싸이월드 동영상 게시판
S11	20(대1)	여	2000	3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주3-4회	하루 60-70분	지인의 미니홈피, 싸이월드 UCC
S12	20(대2)	여	1998	2시간	집	글, 사진	블로그	주3회	하루20분	다음, 싸이월드, 유튜브
S13	21(대2)	여	2000	2-3시간	집	-	-	-	하루10분	판도라TV
S14	21(대2)	여	1998	3시간	집	글, 사진	블로그	주1회	주60분	싸이월드,

										네이버
S15	21(대3)	여	2001	1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주1-2회	주30분	싸이월드, 유투브
S16	22(대3)	여	1999	2시간	집	글, 사진, 동영상	미니홈피	-	-	-
S17	22(대3)	여	2000	4시간	집	-	-	-	주60분	네이버
S18	22(대3)	여	2000	3시간	집	-	-	-	주3시간	다음
S19	24(대4)	여	1999	5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주3회	하루40분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UCC
S20	24(대2)	여	1998	2시간	집	사진	미니홈피	주1회	주60분	싸이월드
S21	24(대3)	여	1998	30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주1회	하루30분	네이버
S22	24(대2)	여	1998	2시간	집	글, 사진, 동영상	미니홈피	주1회	주2시간	싸이월드
S23	21(대2)	여	2000	1시간	집	글, 사진, 동영상	미니홈피	하루2회	하루5분	싸이월드
S24	20(대1)	남	2000	3시간	집	-	-	-	하루5분	싸이월드, 판도라
S25	20(대1)	남	1998	2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월1회	주30분	싸이월드
S26	20(대1)	남	1999	1시간 30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하루1회	하루10분	싸이월드, 다음카페
S27	20(대1)	남	1999	1시간 30분	집	-	-	-	하루10분	네이버
S28	21(대1)	남	1998	3시간	집	-	-	-	주5분	싸이월드
S29	21(대1)	남	1999	4시간	집	-	-	-	하루20분	동호회 UCC
S30	21(대1)	남	1999	2시간	집	사진	미니홈피	하루1회	하루30분	싸이월드, 다음
S31	25(대3)	남	1997	2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블로그	주1회	주60분	동호회 UCC
S32	24(대2)	남	1997	1시간	집	글, 사진	미니홈피	주4회	하루10분	싸이월드
S33	24(대2)	남	1998	3시간	집	글	미니홈피	주3회	하루60분	다음, 네이버

4. UCC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인식

1) 사회적 소통과 UCC의 활용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뷰 참여자는 학교, 가정, PC방 등을 통해 인터넷이 보급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했다. 빠르게는 초등학교 시절, 늦어도 중학교 시절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사용했다고 언급한 주요 서비스로는 이메일, 채팅, 게임, 연예인 뉴스 검색, 인터넷 강의 등이고, 싸이월드와 같은 SNS의 이용도 싸이월드가 가입자 천만 이상을 넘어선 2004년을 전후로 대부분 접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좀 더 어린 시절에 접하게 되고, 서비스의 이용이 주변 지인들, 특히 또래 집단의 이용 트렌드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활용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렸고, 절반이상은 이러한 콘텐츠의 포스팅을 위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기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야하는 ‘부담감’이나 ‘귀찮음’ 때문에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방치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타인들이 제작한 UCC의 수용을 위해 인터넷 이용 시간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할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의 UCC 제작을 소홀히 할지라도 타인이 제작한 UCC 수용은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인의 UCC는 미니홈피와 블로그와 같은 개인이 만든 웹페이지나 포털사이트, 카페나 클럽, 혹은 UCC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수용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니홈피와 블로그가 개인이 제작한 UCC가 유포되는 채널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UCC를 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 장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뷰 참여자에게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같은 SNS는 개인의 인맥

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고, 따라서 개인의 UCC가 표출되고 유통되는 주요 장소가 되고 있다. 개인에 따라 미니홈피를 꾸미고 관리하는 데 쏟는 노력이나 관심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SNS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관계의 복원이나 강화 그리고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옛 친구와의 유대감을 지속시키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만난 친구 혹은 선배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가기 위해 SNS를 활용해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고등학교시절부터 채팅, 미니홈피, 사진, 동영상, 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을 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옛 친구와의 유대감을 지속시키거나 새로 만난 친구, 선배들 간의 유대감을 갖기 위해 SNS를 활용했고 그러면서 유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유대의 망이 고스란히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의 온라인 유대망이 확장되면서, 개인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어온 개인의 인적 유대망은 본인의 의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한 온라인상에 남아 있게 된다. 개인의 인적 관계를 보여주는 일촌의 성격이나 규모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단서이자 개인의 표현물이 유포될 수 있는 범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해 자신의 UCC를 올리고 전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기현시적인 표현 행위라기보다는 현재적 혹은 잠재적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S1의 경우와 같이 친구들과의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S21의 경우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좀 더 알기 위해 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표현물은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에 앞서 상대방을 탐색해보는 참고물이 되기도 한다. 개인이 표현물을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에 따라

지인들의 호응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지인들의 반응은 다시 표현물의 제작과 올리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 작용 가운데 올라온 개인의 표현물은 온라인상에 자신을 재현하게 된다.

사진 같은 거 올려서 친구들이 공유하거나 친구를 만들 목적도 있고. 친목을 목적으로도 하고 ... 학교생활이나 놀러 갔을 때 찍은 거, 자기 사진, 가족들, 친구들 (사진 등), 여러 가지 (올려요). 안 꾸미면 애들이 왜 안 꾸미냐고 다들 뭐라고 그러고, 그런 말 듣기가 싫고 그래서 그냥 꾸며요. (S1, 고2, 여)

요즘에는 소개팅이든 미팅을 해도, “짜이 뭐야?”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잖아요. ... 짜이를 단지 얹은 이상은 몇 개정도 해봐요(올려봐요). 옛날 사진이나 일기든 방명록이든 사진이든, 대충 보면 느낌을 알아요 아, 애는 어떤 성격이겠구나. 대충. 요즘엔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아니까 그런 짜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애구나 생각도 하고, 뭐 어디를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거기 써서 낼 때는, “자기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쓰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겠다는 거잖아요. (S21, 대3, 여)

온라인상의 자기재현은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의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표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신의 독자들이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아에 대해 연출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자신의 표현물을 올릴 때 남들이 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프라인에서 보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오기보다는 글이나 영상으로 매개하는 행위 과정에 어느 정도 인상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자신을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과정에서, S22의 사례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잘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낼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개인의 모습을 UCC라는 언어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잠재적 독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이러한 편집 과정에 평소 오프라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면모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끈다. 또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표면상 이러한 자아 표현은 주로 독백의 형태를 띠지만, S30의 경우처럼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소 모습보다는 나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걸로 평소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S22, 대2, 여)

저도 약간 평소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보다 컴퓨터 미니홈피에서 말하는 게 약간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 거 같아요. 특히 제가 동기 중에서는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으니까 애들이 약간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글 하나 올려서 개가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 내가 그거에 관해서 글을 쓰면 본인은 알고 그 주위 사람도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니까. 자기가 느낄 수 있게 (써요). 느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S30, 대1, 남)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은 사회적 유대감의 유지나 강화 혹은 확대를 위해 자신의 표현물을 올린다. 이러한 개인의 표현물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취향을 드러내는 매개체이자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표현물을 올리며 자기를 재현하는 과정이 현재적 혹은 잠재적 유대 관계를 맺는 행위와 맞물리면서, 개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표현물을 올리거나 관리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노출의 수위나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게 된다.

2) 자기 노출과 공사의 구분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전시되는 자아 표현물의 유통 범위는 개인의 연결망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보다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까지 이를 수 있다. 표현물을 올리는 행위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상적 수용자(imaginary audience)와의 상호 작용이나 교감을 기대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이 때 자아의 표현은 상상적 수용자와의 소통을 기대하며 이들의 사회적 기대감에 부응하거나 허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SNS는 고프만(Goffman, 1959)이 말하는 ‘무대위(front stage)’의 자신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무대위(front stage)’와 ‘무대뒤(back stage)’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축된다. 공개와 가시성의 영역으로서의 공적 공간과 비공개와 비가시성의 영역으로서의 사적 공간이란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렵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방식은 자신의 프로필에 개인의 나이, 성별,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남기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표현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현하는 방식이 있다. 인터뷰 대상 대부분은 자신의 프로필에 모든 신상 정보를 기재하기보다는, 성별을 제외하고 비공개를 선택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연락처나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는 사람도 한다. 이들은 연락처나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 정보가 지인들과 사회적 소통과 친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재를 선택한 경우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글이나 각종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가 자신을 ‘전시’하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고, 따라서 남에게 보이고 싶은 면 혹은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을 선별하여 올리고 있다.

일기 쓰는데 어쩔 때는 그냥 기분만 써요. 오늘은 눈 왔는데 갑자기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그걸 내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도 있고 공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 남한테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요. 내용을 봤는데 내가 약해보인다 싶은 그런 거는 차단하고 그래요. (S32, 대2, 남)

개인이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은 보여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선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표현을 편집하고 선별하여 올리는 과정 속에 일차적인 공개와 비공개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 공개 설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표현물이 공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SNS는 개인이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사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누가 자신의 내용을 볼 수 있는지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부여한다. 이때 개인이 비공개, 일촌 공개, 전체 공개를 선택하는 방식은 개인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공개’의 영역에 노출된 개인의 모습이나 표현물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 접근이 가능한 대상으로서,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공적으로 사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타인이 볼 것을 염두에 둔 의식적 행위이다.

전체공개 해 놓은 거는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풍경 사진에 좋은 글귀 써놓은 거 그런 거는 전체 모습 해 놓는데, 또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리는 거고. (S20, 대2, 여)

일촌은 거의 250명. ... 거의 전체공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올려요. 뭐 봐도 상관없어. 그냥 올리는 자료 자체가 전체 공개할 것만 올려요. (S25, 대1, 남)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물 가운데 ‘누가 봐도 상관없어’ 혹은 자신 또는 자신의 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드러내고, 비공개 설정을 통해 개인적 표현물을 사적으로 축적해가기도 한다. 일단 올린다는 행위가 공개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행위를 통해 사회적 소통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일촌 공개는 공사의 구분이 모호한 친밀성의 공간을 구축한다. 사진과 같은 개인을 드러내는 표현물을 지인 과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친교를 하는데, 지인의 범위가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의 접근은 차단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친밀성의 공간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지인들과 정서적 교류와 친분을 나누지만, 모르는 타인의 접근은 거부한다. 이러한 친밀성의 공간은 ‘비공개’의 사적 영역과 구분되면서도 공개와 가시성을 가진 사적 영역을 형성한다.

온라인상에 사적 영역을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은 표현물에 대한 ‘비공개’를 설정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은폐하는 방식이 있다. 다이어리와 같은 개인의 표현물에 대한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적 영역의 구축은 이러한 은폐와 차단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공개를 통해서도 구축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 몇 사람은 일촌과 같은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표현공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사적 공간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후자의 사례를 이야기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일반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는 있지만 친구들이 알 수 없는 블로그의 공간을 ‘개인 공간’ 혹은 ‘사생활’의 공간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표현물을 공적으로 공개하지만, 자신이 아는 친구들의 시선이나 상호 작용의 구속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개인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를 느낀다.

블로그도 가입했는데요 그것도 가끔 하는데요 제 주위에 블로그 하는 사람들 보면 남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개인공간이라는 느낌이에요 싸이는 아무나 봐라 이런 느낌인데. (S16, 대3, 여)

저는 몰래 블로그하고 있어요. 너무 애들이 캐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생활 있잖아요 너무 막 꼬치꼬치 알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비밀리에 하고 정보 스크랩정도 하고 있어요. (S19, 대4, 여)

미니홈피는 군대 전역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되었고요,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공개 안 하고 제가 쓰고 싶은 내용만 쓰는 그런 용입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일촌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검색은 되는데 친구들한테 이웃신청도 안 받았어요. 알리지도 않았고요. 싸이월드는 편한 글은 못 올려요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전 블로그 같은데 올리죠 참 애매한데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사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 글을 싸이월드에 올려서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건 부끄럽다고 느껴져서요. 수려하게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창피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건 괜찮아서 블로그에 올리고요. (S31, 대3, 남)

자기 표현물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선택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사적으로 남는 것의 구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드러냄이 반드시 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지인의 시선이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표현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공적으로 열려 있지만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전체 공개와 일촌 공개를 구분함으로써 공적인 표현물과 사적인 친밀감을 위한 표현물을 구분하지만, 일촌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의 일촌 공개는 사실상 전체 공개와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개인이 인식하는 공사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공개와 비공개 혹은 사적 표현물이 유포되는 정도와 범위로 단순하게 재단될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SNS를 접했던 이들에 있어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의식적 선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뒤늦게 깨닫고,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학습 효과를 가졌다. S12의 경우, 자신의 ‘다이어리’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놓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자신의 심리적 근황을 묻는 질문에 당황했다고 한다. 그 이후 그는 ‘다이어리’를 비공개로 해놓고 다이어리에 올리는 내용도 가려서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S32는 미니홈피에 올린 모든 정보를 전체 공개로 해놓고 있었는데,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시한 이는 누나의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스크랩해가고 그 누나에게 계속해 연락을 취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사진을 올리고 공개할 때보다 신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적인 것의 공개와 비공개가 비단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이는 사람의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로 인해 자신의 사적인 것이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경험을 통해, 혹은 경험담을 전해 들으며, 인식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서 보다 의식적인 공개와 비공개의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선택만으로 사적 표현물이 유통되는 정도와 범위가 통제되기 어렵다는 점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3) 프라이버시의 인식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개인 정보 및 프로필 제공에 관한 프라이버시 인식을 자필로 기술하는 조사에서 인터뷰 참여자 33명 중 25명이 “개인정보가 본인 모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프라이버시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주로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불안감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신 자신과 동영상, 연락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의 유출을 주목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터지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도용이나 상업적 악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일부만이 “낯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얼굴, 나이 등)를 알고 있지만, 나는 알지 못할 때 불쾌함”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일기장을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 간파당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의 두려움”과 같은 낯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나,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노출되는 것에 두려움과 같이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한다.

<표 2> 인터뷰 참여자가 기술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감

인터뷰 참여자	불안감의 내용
S3	“뉴스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것을 보도하는 걸 볼 때마다” 불안하다
S9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졌을 때 나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더욱 불안감이 느껴진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올 것 같다”
S10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유로사이트에 가입한다든지 등등 최근 옥션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불안하다”
S11	“상업적 목적 등으로 악용될까봐” 불안하다
S12	“학교가 밝혀지면 연결되는 곳이 많아서 함부로 밝히지 않는다”
S14	“낯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얼굴, 나이 등)를 알고 있지만, 나는 알지 못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불쾌함을 느낀다”
S16	“옥션 등 개인정보 유출 파문” 때문에 불안하다
S19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일기장을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 간파당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S20	“주민등록번호 도용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서, 내가 모르는 사이트에서 전화 혹은 문자가 올 때” 불안하다
S23	“특별하게 불안하지는 않지만 남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다
S25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내정보가 악용될까봐 불안하다”
S28	“성격이 소심하고 조금 폐쇄적인 편이라 처음부터 안좋은 이미지가 생길까봐서” 불안하다
S30	“정보유출로 인한 스팸 메일 혹은 보이스 피싱”이 불안하다.
S31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노출될까(가족, 친척, 친구...)” 불안하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UCC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노출을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개인 이미지의 노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한 나의 노출이나 감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표현물

을 타인이 소리 없이 보고 가는 소위 ‘눈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간혹 상대방의 인정을 기대하고 올렸던 개인의 표현물에 대해 예기치 못한 타인의 악의적인 반응으로 심리적인 곤혹감을 느꼈다는 사례는 있지만,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인식하진 않았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사적인 사진이나 표현물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하지만 자기를 노출한 사진에 대해 악성 댓글과 같은 직접적인 적대 반응이나 비정상적인 사이버 스토킹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유포 문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예를 들어, S20의 경우, 우연히 일반 검색창에서 자신의 이름을 쳐보았다가 자신의 사진이 뜨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친구가 미니홈피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보그컷”, “OOO”라는 이름을 태그로 걸어 놓아 검색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기 사진이 모르는 타인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도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 몇 사람은 클럽이나 카페 혹은 타인의 미니홈피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습을 하려 했지만, 친구들이 이러한 유통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자 스스로 문제에 대해 포기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모두가 자신의 사진이 개인의 통제권을 벗어나 유통되는 것에 대해 신경은 쓰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이상 ‘무슨 개인적 피해가 있으랴’ 식의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잘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나왔으면 지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본다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여요. (S17, 대3, 여)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을 쳤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이버에서 누구 사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블로그 사진이 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이사람 어떻게’ 그리고 리플을 남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진 내가 찾는 사진 아니야’ 그리고 넘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놀라고 황당해가지고 ‘빨리 지워’ 그랬는데, 개가 안지우고,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아, 이렇게 생긴 애도 있구나’ 하고 넘기겠지 했어요. (S20, 대2, 여)

다시 말해, 개인 사진의 광범위한 유통에 대해 약간은 불안하지만 ‘별일 없겠지’, ‘이름 없는 일반인인데 누가 신경 쓰겠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지배적이다. SNS를 통해 개인 이미지나 콘텐츠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을 노출하는 표현물을 게시하는 활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온라인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반면, 개인의 생각, 느낌, 이미지 등을 노출하는 UCC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진 않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표현물을 올릴 때 이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이 봐도 괜찮을’ 표현물을 선별하여 공개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얼굴과 같은 자신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자신감과 자기 능력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의 표현물을 통해 타인의 이미지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고 말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물을 선택하거나 편집해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물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이미지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자체가 개인 이미지나 관계에 관한 많은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올린 타인의 영상 이미지나 타인이 올린 자신의 영상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선 쉽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맥락에서 유통될 수 있고 개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타인의 시선에 개인의 모습이나 사회적 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자기 노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불안감을 갖지만 이것을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표현물의 유포가 대부분 사회적 유대나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 동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상에 자기 노출 사진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에 익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5. 맺음말

미디어 이용자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웹 2.0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UCC는 개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개인이 제작하거나 가공한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매개로 개인의 지인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에 의해 수용될 수 있고, 사회적 소통이나 관계의 복원, 유지, 강화, 확대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웹 2.0의 시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역사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자신의 표현물을 공표하고 유통시키기가 수월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의 프로필이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이나 검색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개인은 온라인상에 ‘글과 영상 만들기(차용과 전유를 포함한 만들기)와 올리기’라는 언어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혹은 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 개인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맥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혹은 개인 정체성이 드러난 표현물을 자발적으로 전시한다. 개인의 사적 삶을 다양한 공적 차원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표현물을 ‘공적으로’ 드러내거나 ‘사적으로’ 남기는 과정에 의식적으로 개입한다. 표현물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혹은 정보 접근과 정보 접근의 차단을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개인은 상상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 혹은 이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콘텐츠의 접

근·공유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선택과 설정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표현물은 사적 영역에 머물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이나 느슨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친밀성’의 관계망을 통해 공적으로 공유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상의 모든 이들이 잠재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공사의 구분은 단순하지 않으며,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개인의 정서적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표현물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설정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사적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비공개라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지만, 지인들의 시선이나 상호 작용의 구속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에서도 확보될 수 있다. 심리적 프라이버시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표현물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사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친밀한 유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모든 것이 공개된 공적 공간과 큰 차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친밀한 상호작용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서 사적 자아의 모습이 보다 공적으로 공유되는 공사의 구분이 모호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개인이 인식하는 사적 영역의 경계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공개와 비공개 혹은 사적 표현물이 유포되는 정도와 범위로 단순하게 규정될 수 없다.

개인의 SNS는 개인의 행적, 느낌, 성격, 취향 혹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다. 개인의 표현물이 웹의 연결성 그리고 복제나 검색 가능성에 의해 개인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수용되거나 보다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다. 내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나와 연결된 친구의 흥미를 통해 널리 노출될 수 있고, 나의 모습이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로 인식한 것은 주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이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유출에 의한 따른 오용, 특히 상업적 오용의 위협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UCC를 통해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노출되고 감시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을 노출하는 표현물을 게시하는 활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개인 이미지나 콘텐츠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유통되거나 검색 가능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이것을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공개행위가 사회적 유대감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있고 남들이 다하고 있는 문화적 트렌드이기에, 악의적인 반응을 얻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와 연계시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표현물을 올리며 공개할 때, 자신의 공적 자아를 어떻게 전시할지를 의식하며 표현물의 내용을 여과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개인의 표현물이 언제나 개인의 통제권에 있지는 않다. 개인의 정보와 이미지가 타인에 의해 공개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다. 자신이 올린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이 올린 콘텐츠가 서로 연계되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많은 정보가 집적되고 공개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유통된 콘텐츠는 인터넷의 효과적인 검색 엔진과 링크 기능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은 설정 기능을 통해 자신의 상상적 수용자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통제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을 노출하는 표현물이 유통되는 맥락을 개인이 ‘공개와 비공개’의 설정으로 단순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 이러한 표현물이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남아 있게 되어,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사적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기란 점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을 노출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의 사회적 소통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 정보 및 표현물이 개인의 통제권을 벗어나 남용될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외적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외적 메커니즘으로 개인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나 표현물이 유통되는 소통의 맥락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기술의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정보 유통 과정에서 개인이 정보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적극적인 제도의 마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의

‘노출되지 않을 권리’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상업적·행정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상의 자기 전시나 노출의 문화를 논의하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 계층의 활용하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UCC를 중심으로 공사의 구분 방식이나 프라이버시 인식의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미니홈피나 블로그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UCC와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고, 연령 계층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 계층에 국한하여 조사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UCC에 대한 조사나 다른 연령 계층의 프라이버시 인식과의 비교 연구를 보완해감으로써 프라이버시 인식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이 일상화되고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기 노출이 각종 정보의 형태로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참고문헌

- 성선제 (2004).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 시리즈 04-15).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우지숙 (2005).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4호, 110~145.
- Ashcroft, J. (2008).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활판 인쇄술의 영향: 몇 가지 미디어 생태학적 해석.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문화,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561~591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연도 2007).

- Boyd, D. & Ellison, N. (2008).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210~230.
- Cheddie, J. (1999). From slaveship to mothership and beyond: thoughts on a digital diaspora. In Cutting Edge, The Women Research Group (Ed.), *Desire by design: Body, territories and new technologies* (pp. 163~174). London: I.B. Tauris.
- Curry, M. R. (1997). The digital individual and the private real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 681~699.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a prison*. London: Penguin Books.
- Flaherty, D. H. (1999). Visions of privacy: past, present, and future. In C. J. Bennett & R. Grant (Eds.), *Visions of privacy: Policy choices for the digital age* (pp. 19~38).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al, S. (2002). A semio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3(1), 77~95.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 Graham, S. (1998). Space of surveillant simulation: New technologies, digital representations, and material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6, 483~504.
- Groombridge, N. (2002). Crime control or crime culture TV? *Surveillance and Society*, 1, 30~36.
- Hine, C. & Eve, J. (1998). Privacy in marketplace. *The Information Society*, 14(4), 253~262.
- Jimroglou, K. M. (2001). A camera with a view: Jennie CAM, visual representations and cyborg subjectivity. In E. Green and A. Adam (Eds.), *Virtual gender: Technology, consumption and identity* (pp. 286~301). London: Routledge.
- Karyda, M. & Koklakis, S. (2008). Privacy perceptions among members of online communities. In A. Acquisti, S. Gritzalis, C. Lambrinoudakis & S. Vimercati (Eds.), *Digital privacy: Theory, technologies, and practices* (pp. 253~266). New York: Auerback Publication.
- Koskela, H. (2003). Cam era: Contemporary urban panopticon, *Surveillance and Society*, 1, 292~313.

- _____ (2004). Webcams, TV shows and mobile phones: Empowering exhibitionism, *Surveillance and Society*, 2(2/3), 199~215.
- Lange, P. (2008). Publicly private and privately public: Social networking on YouTub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361~380.
- Lenhart, A. (March 17, 2005). Protecting teens onlin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On-line], Available: http://www.pewinternet.org/pdfs/PI_Filters_Report.pdf.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3), 393~411.
- Lyon, D. (1998). The world wide web of surveillance: The Internet and off-world power-flow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 1~9.
- _____ (2001). *Surveillance society: Monitoring everyday lif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Marx, G. T. (2001). Murky conceptual waters: The public and the private.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3(3), 157~169.
- Mann, S., Nolan, J. & Wellman, B. (2003). Surveillance: Inventing and using wearable computing devices for data collection in surveillance environments. *Surveillance and Society*, 1, 331~355.
- Mathiesen, T. (1997). The viewer society: Foucault's 'panopticon' revisited. *Theoretical Criminology*, 1, 215~234.
- Ong, W.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임명진 (역) (199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Poster, M. (1995).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Polity Press.
- Sheehan, K. B. (2002). Toward a typology of Internet users and online privacy concerns. *The Information Society*, 18(1), 21~32.
- Shapiro, S. (1998). Places and spaces: The historical interaction of technology, home, and privacy. *The Information Society* 14, 275~284.
-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New York: Penguin.
- Solove, D. J. (2001). Privacy and power: Computer databases and metaphors for information privacy. *Stanford Law Review*, 53, 1393~1462.

- _____ (2002). Conceptualizing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90(4), 1087~1155.
- _____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이승훈 역(2008).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서울: 비즈니스 맵.
- Tapscott, D. (2006).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New York: Penguin.
- Thomas, L., Frohne, U. & Weibel, P. (Eds.) (2002). *CTRL[SPACE]: Rbetorics of surveillance from Bentham to Big Brother*. MIT Press.
- Viégas, F. B. (2005). Blogger's expectations of privacy and accountability: An initial surve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line], 10(3). Available: <http:jcmc.indiana.edu/vol10/issue3/viegas.html>
- Viseu, A., Clement, A. & Aspinall, J. (2004). Situating privacy online: Complex perceptions and everyday practice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7(1), 92~114.
- Warren, S. & Brandeis, L.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193~220.
- Weintraub, J. (1997). The theory and politics of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 Weintraub & K. Kumar (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p. 1~4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Weiss, S. (2007). Online social networks and the need for new privacy research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aper presented at FIDIS International Summer School[On-line]. Available: http://www.cs.kau.se/IFIP-summer-school/papers/S04_P1_Stefan_Weiss.pdf.
- Williams, R. (1974).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London: Fontana.
- Whitaker, R. (1999). *The end of privacy*. New York: The New Press. 이명균·노명현 역 (2001). 『개인의 죽음』 서울: 생각의 나무.

(투고일자: 2008.11.30, 수정일자: 2009.04.09, 게재확정일자: 2009.04.20)

Self-disclosure and Privacy in the Age of Web 2.0

A Case Study

Dong-Hoo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ncheon)

With the advent of the so-called Web 2.0 age, the interconnections of various contents on the web, as well as the user-participatory services from blogs, web-based communities, picture sharing site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to the sites for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s, have been further vitalized. As the User Generated Contents(UGCs) are flourishing on the web, they have channeled users' desires for self-expression and social acknowledgment, and yet have created the new kinds of invasion of privacy.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how the networked individuals' everyday perceptions of privacy have been reconstructed in the age of Web 2.0. By investigating how users have used the UGCs for their sociality on the web and how they have set the boundaries of the private and the public in these public or semi-public disclosures of self-expressions, it has traced the changing perceptions of privacy in everyday communication practices. For this study, it has interviewed Korean youngsters in their 10s and 20s who have grown up with the Internet and have received self-expressions and social communication on the web as everyday activities. Based on their interviews, it inquires into the concurrent notion of privacy and discuss its cultural implications.

Keywords: self-disclosure, web 2.0, privacy, private/public boundaries